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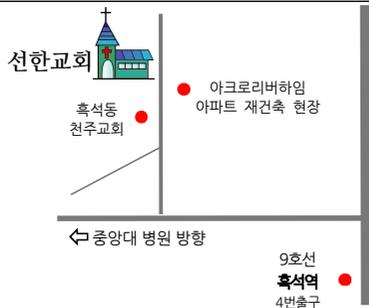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오후 1:00 에스더회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진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인혁		이금주 (미국)
	협력전도사 오호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조 윤 익 (집사장)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김 대 희		(2호) 세종 선한교회
	박 희 태		신원섭 목사
	유 신 웅		
	한 배 선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기도의 참석 서로 돌아보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송구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17)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3장 (통일찬송가 23장)
교 독 문	교독문 5번(시편 8편)
찬 양 과 경 배	365장 (통일찬송가 484장)
예 배 기 도	조운익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빌립보서 4장 6~7절
설 교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손정환 윤국로 윤진기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는 믿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부모의 마음 (사무엘하 18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설 명절 연휴 안내** 2018년 구정 명절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휴 기간 중 목(15), 금(16)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서울 남부 지방 회 월 레 회** 13일(화), 주의뜰교회(김대열목사)에서 월례회가 있습니다.
- 오 후 예 배 안 내** 3월 첫주(3월4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 여전도회 연합 수련회**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여전도회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 교 우 동 정** 유성은 전도사, 한배선 장로 교회 개척
- 대 심 방** 대심방이 시작 되었습니다. 계시판 일정을 보시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신청**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매 일 성 경 강 론** 후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악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강북,강서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8년 성경강론 범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20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가정예배

“하나님 나라의 상급”

찬송 : '주님 주실 화평' 327장(통 361장)

본문 : 요한계시록 3장 7~13절

말씀 : 예수님이 여섯 번째 편지를 보내신 교회는 빌라델비아교회입니다. 계시록 일곱 교회 중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교회일 것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건물이 커서도, 성도 숫자가 많아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좋은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학력 지위 재산 건강 등에서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다 해도 믿음을 잘 지키는 향기로운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교회에 여러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 교회 앞에 찾아와 절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9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0절). 이는 지금 이 땅에서 받아 누리실 상급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고(11절), 천국에서 주님 이름이 아로새겨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입니다.

결국 주님은 현재 이 땅에서 그리고 훗날 하늘에서도 상급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이것저것 내버리고 헌신한 자에게 현세인 이 땅에서 백배나 베풀어주시고 내세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막 10:30).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현세의 복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재벌이 되거나 자녀들이 몽땅 서울대에 입학하는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다.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어마어마한 현세의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다.

반면 내세의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게 하시며 더군다나 주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급도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처럼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선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빌 4:6-7)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론

1. 바울의 기도 교훈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6).

(2)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6).

(3)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

2. 교훈

(1) 염려하지 말자.

(2) 늘 감사가 넘치도록 하자.

(3)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자.

결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조운익 장로	김대희 장로
헌 금 위 원	손정환 윤국로 윤진기	손정환 윤국로 윤진기
안 내	관약셀	강복,강서셀

찬양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377장/통일 찬송가 449장)
통독	사무엘하 16장
본문 내용	다윗은 시바의 호의와 므비보셋에 대한 거짓 보고에 속아 므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자손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장수들이 가서 죽일 것을 권고하나 다윗은 묵묵히 갈 길을 갑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친구이자 신하인 후새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로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대로 행합니다.
생각해보기	
1	<p>압살롬의 다윗성 입성</p> <p>(1) 본장은 도피 상황 중에 다윗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해 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 줌</p> <p>(2) 감람산(마루턱)을 지날 즈음에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각종 음식물을 실은 나귀를 끌고와 다윗에게 므비보셋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고 거짓을 고하고 므비보셋의 전재산을 넘겨 받음</p> <p>(3) 사울과 같은 가문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므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피난길을 재촉함</p> <p>(4) 후새는 다윗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압살롬을 거짓 환대하였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좇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p> <p>(5) 원수의 저주앞에서 참고 인내해야 하지만 동시에 아침하는 자의 뇌물과 간사한 말에 넘어가 어리석은 행동을 양도록 언제나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p>
핵심 단어	<p>압살롬(Absalom) 뜻 : 내 부친은 화평</p> <p>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제 3자로 그술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다(삼하 3:3).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이스라엘 궁 제일의 미남자이다(삼하 14:25). 미모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장형 암논을 죽였다(삼하 13:28-29). 부왕을 두려워 하여 그술 외가에 가서 3년간 있다가 요압의 주선으로 돌아 왔으나 2년간 부왕을 대면치 못하였다(삼하 13:37, 14:1-3, 21:28). 그 후 반란을 일으켜 부왕을 궁 경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왕이라 자칭하고 부왕의 군대와 싸우고 삼림중에서 패주하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삼하 15:7-12, 18:6-15).</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주의 사랑은 / 주 예수 보다 더 (94장/통 10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몇 명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들이 코끼리 우리에 도달했을 때 인도하던 동물원 직원은 단순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코끼리를 만지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손을 뻗어 코끼리의 꼬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코끼리는 큰 밧줄과 같구나!”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가 만졌을 때 이상하게도 큰 밧줄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코끼리는 큰 통나무 또는 나무와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손을 내밀어 코끼리 귀 중 하나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는 귀가 간지러워 팔랑거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 이것 봐, 코끼리는 큰 팬 같아”라고 외쳤습니다. 네 번째 남자는 조심스럽게 코끼리 코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 코끼리는 거대한 뱀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완전히 혼란스러웠고, 앞으로 나아가 진리를 찾기를 희망하고 더듬는 중 상아를 만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나는 코끼리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입니다.” 동물원 직원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p> <p>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같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만으로 상황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한 경험만을 바탕으로 판단해 낙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게 해 줍니다.</p> <p>시각장애인이 코끼리 일부만 만지고 알 듯 나 또한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p>
말씀 나누기	시편 73:15~28
묵상포인트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볼 때, 신실한 사람도 그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때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참된 믿음은 영원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 삶을 반석 위의 집처럼 견고하게 하십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을 가까이하는 자는 복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갈등하던 시편 기자의 고민이 해결된 때는 언제인가요? 그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인가요?(16~20절)
적용하기	신자인 나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주변의 불신자는 염려 없이 잘사는 경우에 느꼈던 고민과 응답에 관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불공평한 상황으로 마음이 요동할 때 말씀으로 제 무지함을 깨우치소서. 주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과 선인의 결말이 어떠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까이함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타협은 항상 문제를 낳는다

날짜 : 2월 16일

찬양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통일 찬송가 393장)
통독	사무엘하 20장
본문 내용	세바의 선동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다윗 대신에 세바를 좇습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반란 진압을 명령하고, 요압은 아마사에게 접근하여 그를 죽입니다. 사람들은 요압을 따라 세바를 쫓아갑니다. 요압은 세바를 죽이기 위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고자 하는지 묻습니다. 요압은 세바가 일으킨 반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백성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주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기	
1	<p>세바의 반란</p> <p>(1) 다윗의 환궁 문제로 인해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간에 분쟁이 발생함</p> <p>(2)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류함</p> <p>(3) 환궁한 다윗은 후궁 열명을 별실에 가두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시킨후 나라의 편재를 재정비함</p> <p>(4) 아마사와 요압처럼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지 않도록 매사에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p>
핵심 단어	<p>아마사(Amasa) 뜻 : 무거운 짐진 자</p> <p>[1]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삼하 17:25). 압살롬이 그를 요압 대신으로 반군의 장관으로 삼았더니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을 신봉했으나 얼마 안되어 요압에게 피살되었다(삼하 28:12).</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멋진 작전 비참한 결과

날짜 : 2월 13일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507장/통일 찬송가 455장)
통독	사무엘하 17장
본문 내용	아히도벨은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만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사는 다윗을 잘못 건드리면 더 큰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친히 가서 다윗을 죽이라고 권면합니다. 압살롬과 신하들은 후세의 계략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후사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계략을 들은 다윗은 강을 건너 도망칩니다. 자기의 계략이 시행도 되지 못하자 아히도벨은 자살합니다. 한편,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래는 다윗의 군사를 위해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생각해보기	
1	<p>후새와 아히도벨의 모략</p> <p>(1)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파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심</p> <p>(2) 다윗을 해하려 한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윗을 돕는 후새의 모략에 눌러 성사되지 못함</p> <p>(3) 아히도벨은 일만 이천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다윗의 후미를 치자고 했는데 그 의견이 정확했지만 압살롬은 전력을 강화해서 치자는 후새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됨</p> <p>(4) 자기의 모략이 실패로 끝나게 된 사실을 안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p> <p>(5)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소비와 마길과 바실래의 도움을 받음</p> <p>(6) 성도들은 비록 곤경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p>
핵심 단어	<p>아히도벨(Ahithophel) 뜻 : 무지함의 형제</p> <p>다윗의 모사로서 지략이 있어 매우 중히 여기더니 압살람이 고문으로 청빙 하였다(삼하 15:12). 첫번 배푼 모략이 부왕의 후궁들을 간통하는 일이 있었다(삼하 16:20-23). 그 다음 좋은 모략을 베풀었으나 시행되지 않음을 보고 고향에 돌아가 자살하였다(삼하 17:23). 그는 우리아의 처 밧세바의 조부인듯 하다(삼하 11:3, 23:34 비교).</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통일 찬송가 383장)
통독	사무엘하 18장
본문 내용	다윗은 군사를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의 수하에 두어 전쟁에 나아가게 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할 것을 당부합니다. 압살롬은 전쟁 중에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립니다. 이를 들은 요압은 다윗의 지시를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전쟁이 그칩니다. 무리는 압살롬의 시체를 가져다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자 합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지만, 결국 아히마아스도 보내게 됩니다.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다윗에게 갑니다.
생각해보기	
1	<p>압살롬의 최후</p> <p>(1)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예브라임 수풀 가운데서 접전을 벌임</p> <p>(2) 다윗은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부탁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임</p> <p>(3) 다윗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얻는데 이어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깊은 비탄에 잠김</p> <p>(4) 자기 생명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마음(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며 살자.</p>
핵심 단어	<p>뜻 : 여호와와 아버지 되심</p> <p>[1] 다윗의 장군.</p> <p>(1) 다윗의 누이 스루아의 아들로서 아비새와 아사헬의 형이다(삼하 2:13)</p> <p>(2) 다윗의 가장 유명한 용사중의 한 사람으로 다윗이 유대만 영토로가지고 있을 때 여부스족을 쳐 이기고 총사령관이 되어 군사상에 대대한 공 이 있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다윗 다음가는 지위에 있었다(대상 11:6).</p> <p>(3) 다윗에게 귀순한 용사 아브넬을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한으로 공의를 무시하고 살해하였다(삼하3:27,31)</p> <p>(4)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였을 때 잘 변호하여 부자를 화목케 하는 데 성공하였다(삼하14:1-20)</p> <p>(5) 압살롬 반역시에 적은 군사로 압살롬의 대군을 격파하고 다윗의 의사를 거슬러 압살롬을 죽였다. 왕은 자기 종제 아마샤로 군대장관을 삼으니 불만을 품고 있다가 아마샤를 죽였다(삼하18:2-15,19:5-7, 20:4-10).</p> <p>(6) 아도니아 반역에 참가하였다가 솔로몬에게 피살됨(왕상2:28-34)</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가 458장/통일 찬송가 513장)
통독	사무엘하 19장
본문 내용	<p>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이 슬퍼하자, 모든 백성들도 승리의 기쁨 대신에 슬픔을 느낍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가서 차라리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신복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윗을 떠나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압살롬이 죽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두 제사장을 유다에 보내 왕을 궁에 모셔 들이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요압 대신 아마샤를 군대장관으로 세우려는 다윗의 계획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 들이게 합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자 시므이가 나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오자 다윗은 왜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갈 수 없음을 고한 므비보셋에게 다윗은 그의 종 시바와 함께 재산을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래에게 함께 예루살렘에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많은 나이로 인해 왕에게 폐만 끼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김함을 보내며 왕의 호의를 부탁드립니다. 유다가 왕을 모셔 오자,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p>
생각해보기	
1	<p>다윗의 환궁</p> <p>(1)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비탄에 잠겨 있는 다윗에게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고함</p> <p>(2)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있자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지파에 파견하여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환궁에 적극 나서게 함</p> <p>(3) 환궁 길에 오른 다윗을 여러 사람들이 나와 영접함. 그 가운데 시므이와 시바, 므비보셋과 길르앗 사람 바실래가 있음</p> <p>(4) 시대적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기를 잘 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므비보셋과 바실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배우자.</p>
핵심 단어	<p>므비보셋(Mephibosheth)</p> <p>뜻 :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p> <p>본래는 므립바알(바알의 영웅)이라고 불렀다(대상 8:34).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이 싫어서 므비보셋이라고 고쳤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 그 옛 친구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원래의 요나단의 재산을 다 주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행동에 관련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그는 진실함이 들어나서 여전히 다윗의 후대를 받았다(삼하 4:4, 9:6 16:1-4, 19:24-30).</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